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몰입에의 정도에 관한 연구: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이 혁 진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인터넷은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문제는 사용자가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것과 그 이면에는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생활스트레스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대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음란물 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사이버 섹스 중독에의 경향성에 차이를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 무엇이며, 이런 경향성에 있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CAI(Young, 2001), RUIS(Russell 등, 1980), BEPSI-K(배종면 등, 1992)를 실시하여 측정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사이버 섹스 몰입 총점이 더 높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외로움과 사이버 섹스 몰입, 스트레스와 사이버 섹스 몰입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이버 섹스 몰입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이 매개변수로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사이버 섹스 중독, 외로움, 스트레스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kyonggi.ac.kr

컴퓨터와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항목이 되었고,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1만 명으로 2000년(1,904만 명) 이후 10년 동안 약 2배(1,797만 명)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77.8%로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표는 우리나라의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세계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공통적인 요인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다(남영옥, 2002).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49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률 7.2%, 중독자 수 2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0.7%로 최근 5년 내 최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은 10대가 10.7%, 20대가 9.0%, 유아동이 7.3%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자 집단 중 성인용 콘텐츠 이용자 절반 이상(66.3%)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면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중 일부는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윤예진, 신성만, 2009). 사이버 섹스 중독이란 성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포르노 검색, 성적인 목적의 채팅, 문자메시지가 포함되고, 이는 행위중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Delmonico, 1997). Young은 사이버 섹스 중독이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이라고 밝히며, 인터넷 중독자의 20% 이상이 사이버 섹스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Young, 1998a). 윤예진과 신성만(2009)도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중독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섹스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섹스 중독은 실제 성폭력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음란물의 공유가 쉽고 애행대행 사이트 및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대상을 찾아 환상적이고 쾌락적인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 2012). 또한 음란물과 같은 사이버 섹스 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충동의 증가, 왜곡된 성의식을 학습하게 되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성적 욕구를 충동적으로 해소하는 성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여기준, 2000)고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섹스에 몰두하는 행위는 실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측변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의 경우, 박준혁, 김정범, 류설영(2006)이 지적한대로 주로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사이버 섹스 중독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10-30대 2,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15%가 성적 욕구를 사이버 섹스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심영희, 2001)과 중·고등학생 16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0.7%는 사이버 섹스의 ‘중증 중독’, 6.9%는 ‘초기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고된 연구(남영옥, 이상준, 2002)가 있다. 또한 전체 청소년들 중 인터넷 중독이 28.8%, 사이버 섹스 중독이 약 5.7% 정도이고, 이들 중 중증 사이버 섹스 중독자는 1.5% 정도라는 것(김민,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인터넷 중독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김영경, 2013), 청소년의 성태도는 사이버 섹스 중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이버 섹스 중독과 인터넷 중독 및 성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김성숙, 구현영, 2007)는 연구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섹스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성태도가 허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구현영, 김성숙, 2007).

반면,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권태감 수준이 높고, 삶의 의미수준과 신앙성숙도가 낮은 경우 사이버 섹스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윤예진 등, 2009)과 인터넷 포르노 이용량이 많고,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낮으며, 남성인 경우에 사이버 섹스 중독의 가능성과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우형진, 이정기, 2012)가 있다.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생시기까지 오면서 인터넷의 사용량 증가와 상대적으로 커지는 자유에 비례해서 사이버 섹스 중독의 위험성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하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외로움과 스트레스이다.

외로움은 슬픔이나 불안을 수반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로(Rubenstein, Shaver, & Peplau, 1979; 송원영, 2012에서 재인용),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그 개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 생기는 불유쾌한 경험이다(Peplau & Perlman, 1982; 이만제, 장해순, 2009에서 재인용).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상성을 붕괴하는 자극에 대한 인간 신체 반응으로서 이들 반응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압

박을 받게 되고, 개인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험을 스트레스라고 명명하게 된다(Selye, 1974; Rice, 1992; 최윤정, 2012에서 재인용). 외롭기 때문에 음란물과 같은 사이버 섹스 행위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성충동의 증가, 왜곡된 성의식을 학습하게 되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성적 욕구를 충동적으로 해소하는 성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여기준, 2000)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 음란물을 비롯한 성 중독 행위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거나 종종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송원영, 2012)는 연구는 외로움 수준이 높게 될 경우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과의 연구는 거의 없지만,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 중독 경향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며(박준혁 등, 2006),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도박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중독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김영경, 2013). 급격한 사회변화와 무한 경쟁, 핵가족화, 이기주의 팽배 등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외로움을 겪게 되고(임연진, 나유미, 2003), 이런 외로움·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어(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Caplan, 2002; 이정윤, 이상희, 2004에서 재인용) 사이버 섹스 중독의 경향성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심리적으로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나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세대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학업성취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데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6; 정미영, 조옥희, 2013에서 재인용). 또한 대학생활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 이상의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chianson, Bughi, Unger, Spruijt-Metz, & Nguyen-Rodriguez, 2009). 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나 어려운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인터넷을 찾게 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학생들의 사이버 섹스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영역인 성범죄와 관련되어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이버 섹스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사이버 섹스 중독에의 경향성, 즉 사이버 섹스에의 몰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런 중독적인 경향성에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몰입을 높이는 요인을 검정함으로써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조사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K 대학

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참여의 조건으로 학기말시험에서 총점의 2%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았다. 최종 분석에는 무응답 및 응답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부분에 의해서 분석에서 제외된 59명을 빼고 총 341부가 사용되었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3%(110명), 67.7%(231명)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만 19세(37.0%, 126명), 만 18세(18.2%, 62명), 만 20세(16.1%, 55명)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사회계(71.3%, 243명), 예체능계(11.1%, 38명), 자연계(9.7%, 33명)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3.0~4.0미만(64.5%, 220명), 2.0~3.0미만(20.5%, 70명), 4.0이상(10.3%, 3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무교(59.8%, 204명)가 가장 많고, 기독교(25.8%, 88명), 불교(7.6%, 26명)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소득은 모름(29.0%, 99명), 500만원 이상(25.5%, 87명), 300만원~400만원 이하(17.3%, 59명)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부모(92.1%, 314명), 모자(3.5%, 12명)로 양부모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 친구와의 관계는 모두 좋은 편이다(81.8%, 87.7%), 보통이다(16.4%, 11.4%)순으로 나타났다. 연애히트는 1~5회(74.2%, 253명), 없음(12.0%, 41명), 5~10회(10.3%, 35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애기간은 1개월~3개월(24.6%, 84명)이 가장 많고, 3개월~6개월(21.1%, 72명), 1년 이상(19.9%, 68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은 없음(66.6%, 227명)이 대부분이었고, 10회 이상(15%, 51명), 1~5회(8.2%, 28명)순으로 나타났고, 성관계까지 걸리는 기간은 무응답(74.5%, 254명), 3개월 이내(11.1%, 38명), 6개월 이내(7.9%, 27명)순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밝히길 꺼려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사이버음란물 접촉횟수는 없음(43.7%, 149명), 드물고 불규칙적(42.8%, 146명)순이었고, 사이버음란물 접촉시간도 없음(46.0%, 157명), 드물고 불규칙적(37.2%, 127명)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사이버음란물을 경험해 본적이 없거나 접촉한 경우에도 드물고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이버 섹스에의 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Young(2001)이 제작하고, 김민(2003)이 수정·변안한 사이버 섹스 중독 검사지(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이버 섹스에의 몰입 정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로 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6개 응답 항목의 5점 척도(결코 아니다=0, 아주 드물게 그렇다=1, 가끔 그렇다=2, 종종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이 0-30점이면 비중독, 31-49점이면 경미한 중독, 50-79점이면 중증 중독, 80-100점이면 심각한 중독 상태를 말한다. 문항 내용은 사이버 섹스에 이용하는 시간과 사이버 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 섹스 사용으로 인한 일상적 생활의 장애 여부, 온라인 상황에서의 성적 강박행동과 인터넷에 대한 의존적 특성, 사이버 섹스로 인한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통제조절력과 행동상의 문제, 사이버 섹스를 통한 보상욕구 여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행위변화와 전이 여부, 비정상적인 온라인 성적 행동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민, 2003; 윤예진 등, 2009에서 재인용). 저자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1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UCLA 외로움 척도(RULS), 외로움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ussell, Peplau, Cutrona(1980)에 개발 및 개정된 RULS(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했던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방식으로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드물게 그렇다=2, 때때로 그렇다=3, 종종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나머지 10개의 문항은 불만족을 포함한다. 점수의 범위는 20-80점이며, 문항 점수 중 긍정적인 단어(1, 4, 5, 6, 9, 10, 15, 16, 19, 20)이 사용된 문항은 합산 때 역채점을 해야 하는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을 의미하며, 저자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척도 검사지(BEPSI-K),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Frank와 Zyznaski(1988)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배종면, 정은경과 유태우(1992)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1996)이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측정 후 총 점수를 합산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의 외적요구에 대한 생각, 내적인 요구, 기대에 대한 조화, 요구의 불확실성, 요구의 조율을 검증한다. 점수는 각 5개의 문항마다 느끼는 정

도에 따라 5점 척도(전혀 없었다=1, 간혹 있었다=2, 종종 여러 번 있었다=3, 거의 언제나 있었다=4, 항상 있었다=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하여 측정된 후 5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구한다. 그 평균값에 따라 1.6이하는 낮은 스트레스군, 1.8-2.6은 중간 스트레스군, 2.8 이상은 높은 스트레스군으로 그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내적합치도는 배종면 등(1992)의 연구에서는 .84, 임지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외로움, 스트레스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로움, 스트레스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사이버 섹스 총합과 관련된 요인별 평균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별을 분류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사이버 섹스 총합, 외로움,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들을 총점으로 처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대학생은 평균 11.28점을 사이버 섹스 총점을, 32.80점의 외로움 총점을, 2.13점의 스트레스 총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평균 2.95점의 사이버 섹스 총점, 32.66점의 외로움 총점, 2.27점의 스트레스 총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자 대학생보다 사이버 섹스의 경험이 많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여자 대학생은 사이버 섹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이버 섹스 총합과 관련된 요인별 평균 분석

		사이버 섹스 총합 (0~100점)	외로움 총합 (20~80점)	스트레스 총합 (1~5점)
남자 (N=110)	평균	11.28	32.80	2.13
	표준편차	11.97	9.44	0.69
	최소/최대치	0 / 69	20 / 55	1 / 4.4
여자 (N=231)	평균	2.95	32.66	2.27
	표준편차	5.51	8.21	0.68
	최소/최대치	0 / 55	20 / 70	1 / 4.8

사이버 섹스와 외로움, 스트레스간의 상관

이제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r=.24, p<.01$),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과 스트레스($r=.15, p<.01$), 외로움과 스트레스($r=.39, p<.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로움과 스트레스 간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외로움 혹은 스트레스 중 한쪽이 높을 경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사이버 섹스, 외로움,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사이버 섹스	외로움	스트레스
사이버 섹스	1.0		
외로움	.24**	1.0	
스트레스	.15**	.39**	1.0

* $p<.05$, ** $p<.01$, *** $p<.001$

표 3. 외로움, 스트레스 변인이 사이버 섹스 총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SEM	β	t	p	TOL
사이버 섹스 총점	상수	2.07	-	-1.85	.06	
	외로움	.06	.21	3.74	.00***	.844
	스트레스	.75	.07	1.27	.20	.844

$R= .252, R^2= .064, adj R^2= .058,$

$F= 11.47, p= .000***, Durbin-Watson= 1.67$

* $p<.05$, ** $p<.01$, *** $p<.001$

외로움, 스트레스 변인이 사이버 섹스 총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이 느끼는 외로움, 스트레스 정도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외로움·스트레스 총 점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사이버 섹스 경향성 총 점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로움이 사이버 섹스 경향성 총 점수에 미치는 영향($t=3.74, p<.001$)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트레스는 사이버 섹스 경향성 총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t=1.27, p<.20$)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모형은 F값이 11.47($p<.001$)로 나타났고, 회귀식에 대해서는 6.4%의 설명력($R^2=.064$)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6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외로움의 경우 사이버 섹스 총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나머지 변인들과의 상관이

표 4. 스트레스의 사이버 섹스 경향성 경향성에 대한 영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

	예측변인	종속변인	B	β	R^2	adj R^2	ΔR^2	F
1단계	스트레스	외로움	4.984	.395***	.156	.154		62.795***
2단계	스트레스	사이버 섹스	2.083	.157**	.025	.022		8.622**
3단계	외로움	사이버 섹스	.225	.214***	.064	.058	.039	11.472***
	스트레스		.962	.073(p<.205)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반면, 스트레스는 사이버 섹스 총 점수에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은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매개하면서 첫 번째 독립변인의 효과가 줄어들어야 한다(Baron, Kenny, 1986; 송원영,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는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외로움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는 사이버 섹스 경향성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외로움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으로 사이버 섹스 경향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95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57,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73, 매개변수가 .214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p 값은 1, 2단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3단계 독립변

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p = .205$).

독립변수(스트레스)와 매개변수(외로움)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스트레스의 사이버 섹스 경향성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 것($\beta = 0.157 \rightarrow 0.073$)으로 나타나 이는 외로움이 사이버 섹스 경향성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매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로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Sobel test=4.00,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보고, 외로움, 스트레스가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또한 변인들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사이버 섹스 총 점수와 외로움 총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총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남성의 경우 포르노 이용량이 많은

경우,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사이버 섹스 경향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우형진 등(2012)의 선행연구나 남성의 성경험과 성적 사고, 경험·빈도 모두 여성보다 높다고 보고했던 주리애, 하승수, 권석만(2012)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로움, 스트레스 변인의 경우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 외로움과 스트레스 상호간에도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외로움 척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Kanwal, Archana(2003)의 연구, 인터넷 과사용 집단 및 중독집단이 정상 사용 집단에 비해 정서적인 외로움을 더 느끼고 인터넷 네트워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길 원한다는 Elizabeth, Ming(2007)의 연구, 스트레스는 중독 경향군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박준혁 등(200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로움, 스트레스의 경우 사이버 섹스 경험 증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심리적 감정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래집단의 활성화, 멘토-멘티 제도의 운용,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기술,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경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있으며 그 중 외로움이 스트레스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과 외로움의 경우 스트레스가 사이버 섹스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

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요인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의 안정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 동료·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학교)와 가정에서의 도덕적 윤리교육의 의무화이다. 사이버 섹스 중독을 포함한 사이버상의 문제는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며 그것을 가상의 공간이라고 인식한다면 현실에서의 사회유대작용이 그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이성식, 2013).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도덕적 윤리교육이 부모와의 애착, 사회성,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유대작용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사이버 섹스로의 중독 또한 감소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올바르게 만들고 심리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사이버 섹스 경향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의 분포를 비슷하게 맞춰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측

정하는데 사용되었던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의 경우 건강 검진에서 널리 쓰이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서 다른 스트레스 척도들과도 상관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검사 문항이 적은 편이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자극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반응과 증상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스트레스 반응 척도 검사,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검사와 같은 세분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섹스 중독 경향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이버 섹스 경향성에 미치는 요인도 제한적으로 검토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경향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과 외로움의 매개역할 및 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등을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구현영, 김성숙 (2007). 청소년의 사이버 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7), 1202-1211.
- 김민 (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53-83.
- 김성 (2012). 『섹스 중독 쇼크』, 서울: 행복에 너지, pp.25~26.
- 김성숙, 구현영 (2007). 청소년의 사이버 섹스 중독 과 인터넷 중독 및 성태도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1137-1149.
- 김영경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1), 127-156.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사 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한국간호학회지, 27(4), 871-879.
- 남영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 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173-207.
- 남영옥, 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 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박준혁, 김정범, 류설영 (2006). 대학생에서 기질성격, 스트레스 반응과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12(1), 29-38.
- 배중면, 정은경, 유태우, 허봉렬, 김철환 (1992).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가정의학회지, 13(10), 809-820.
-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 심영희 (2001).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 어기준 (2000). 청소년과 컴퓨터음란물,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
- 우형진,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 연구, 16(3),

- 55-84.
- 윤예진, 신성만 (2009). 대학생의 사이버 섹스 중독과 권태감, 삶의 의미, 신앙 성숙도와 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87-216.
- 이만재, 장해순 (2009). 대인불안, 외로움, 소외감이 대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71-96.
- 이성식 (2013). 사이버공간의 가상성 인식에 따른 사회유대와 사이버범죄의 관계: 두 대립가설의 검증. *형사정책*, 25(1), 185-202.
- 이정윤, 이상희 (2004). 청소년의 음란물중독과 우울, 외로움, 충동성, 감각추구 및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45-155.
- 임연진, 나유미 (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 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6). 성인 인터넷 중독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 (1996).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가정의학회지*, 17(1), 42-49.
- 정미영, 조옥희 (2013).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위험 정도에 따른 사회 심리적 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366-376.
- 주리아, 하승수, 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65-982.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이용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plan, S. E. (2002).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development of a theory-based cognitive-behavioral measurement instru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8, 553-575.
- Delmonico, D. (1997). Cybersex: High tech sex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4(2), 159-167.
- Elizabeth, H., & Ming, Y. T. (2007). Excessive Internet Use: The Role of Personality,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Networks in Internet Addiction. *Australian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Society*, 5(1), 34-47.
- Frank, S. H., & Zyzanski, S. J. (1998).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26(5), 533-539.
- Kanwal, N., & Archana, P. A. (2003).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A Cause of Concern. *CyberPsychology & Behavior*, 6(6), 653-656.
- Morahan-Martin, J. M., & Schumacher, P. (199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Rice, P. L. (1992). *Stress and health*. Pacific Grove, CA: Brooks.
- Rubenstein, C., Shaver, P., & Peplau, L. A. (1979). Loneliness. *Human Nature*, 58-65.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elye, H. (1974).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Lippincott and Crowell.
- Wichianson, J. R., Bughi, S. A., Unger, J. B., Spruijt-Metz, D., & Nguyen-Rodriguez, S. T. (2009). Perceived stress, coping and night-eating i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Health*, 25(3), 235-240.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 & Rodgers, R. C. (1998a).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April.
-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US: 1st Books Library.
- 1 차원고접수 : 2014. 03. 02.
심사통과접수 : 2014. 03. 17.
최종원고접수 : 2014. 03. 26.

The Study on Cyber Sexual Invol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Loneliness and Stress as a Mediating Variable

Hyuk Jin Lee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Internet has a lot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nevertheless, it shares something in common and that is when you get into using the internet, it is so incredibly addictive that you cannot come out of it, causing loneliness and stress potentially. Even though internet addiction is described as interesting and important for public internet users and its effects of potentially problems, there is lack of data regarding cyber-sexual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at is a subordinate position in internet addic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the prevalence of cyber-sexual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loneliness and stress between them.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41 university students and CAI(Young,2001), RULS(Russell et al., 1980), BEPSI-K(Bae et al., 1992) were used to measure them. The result shows that cyber-sexual addiction tendency and loneliness are more strongly related in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s,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stress index than male students. And loneliness and stres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cyber-sex respectively. And also loneliness showed that perfect mediated influence of stress affects cyber-sex addiction.

Key words : *Cyber-sexual Addiction, Loneliness, Stress*